

# 을유년(乙酉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새해의 힘찬 다짐



**양 주 승**  
포천신문 지문위원장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을유년의 새 아침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포천신문 독자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는 해가 되길 바라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온 甲申年. 석별의 아쉬움은 있지만 더 이상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신년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온갖 시련은 天寶山 낙엽에 실어 한내川 흐르는 물에 띄워 보내시고 아름다운 일들은 마음의 寶庫에 잘 간직 하십시오. 이제 우리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새로운 다짐으로 붉게 떠오르는 乙酉年 새해를 맞이합시다. 시간은 전능자가 주신 최고의 선물이니 감사함으로 받아,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결단을 하면 하늘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서 갑신년에 이루지 못한 일 乙酉年 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작과 끝맺음 창조의 모든 행동에 주인 의식, 정론직필, 문화창달 기분에

충실하여 보지 못한자 보게 하고, 듣지 못한자 듣게 하여 이번 을유년은 독자도 움직이고 하늘도 움직여 아름다움으로 장식될 것입니다.

생각나는 성경의 교훈 한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는 성경 말씀입니다. 줄은 꼬면 꼬을수록 강해지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힘의 원리란 나눌수록 약해지고, 합하면 합할수록 강해집니다. 포천신문의 각 위원회는 우리 삼겹줄을 만들어 떠오르는 을유년을 빛내봅시다. 그리고 포천 신문을 사랑해주고 큰 관심을 가지신 독자여러분 지난 한해에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을유년 새해에 가정에 편안하심과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 비전과 믿음을 갖고 발전할수 있기를



**유 병 호**  
포천신문 운영위원장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고 2005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시민여러분 모두가 희망차고 행운이 가득한 새해를 맞으시기 바라며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어려움과 아쉬움이 많았던 2004년은 새로운 한해의 진입을 위한 연습의 시간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발전을 뒷받침해야 할 사회, 경제, 정치적 여건 등 어느 하나 쉽게 해결되어 가는 쉽지 않을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역동적이고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비전이 없는 곳엔 삶의 보람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삶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개인의 창의적 능력과 사회적 역량을 키워나갈 저력을 갖추어 나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때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신 고유의 목표를 향해 한장한장 벽들을 뚫아 나가 애정과 믿음을 갖고 나

아간다면 목표실현은 결코 멀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공존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포천신문이 지난 1년간 보여주었던 많은 글들은 15만 포천시민들에게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공감을 느끼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15만 포천시민들의 대변자로, 경기북부주민들의 정론지로서 더욱 성장해나기라 생각합니다.

아무췌록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포천신문 가족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포천신문 독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밝고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하길



**김 기 호**  
포천신문 주부 명예기자단장

포천신문 애독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4년 갑신년도 어느덧 저물고 희망찬 새해아침을 맞이하여 포천신문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기쁨과 지나간 세월은 왜 그리도 빠

르게만 느껴지는지, 많은 보람과 아쉬움을 안은채 벌써 2005년이 시작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기 마련인가 봅니다. 2004년 갑신년도 역시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해였습니다. 특히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2004년이었습니다. 제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려웠던 한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보다 밝고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경제도 나아지고 우리 포천 주민들이 가슴을 활짝펴고 생활할 수 있는 활기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희망과 여유 그리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고 노력한다면 분명 연말에는 나름대로의 가슴 가득한 만족으로 행복해 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새해에는 다져진 기초 위에 포천신문 5개 단체의 협력과 화합으로 보다 큰 도약의 한해가 되리라는 확신과 기대를 해 봅니다. 포천신문 애독자 여러분! 2005년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뜻하는 바 이루어시길 바랍니다. 포천신문 모든 독자와 더불어 심오한 포천 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나눔의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포천신문 주부 명예기자단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언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김 종 현**  
포천신문 조사위원장

포천신문은 2000년 재창간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난 지도 어언 4년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과 도약의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지는 신년호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포천시민을 비롯 경기 북부지역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보면서 올 한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새롭게 그려 봅니다. 포천신문은 우리 지역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 정보를 다양하게 게재하여 오늘의 사회 실상이 투명되고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와 정보를 얻을수 있기에 독자들의 사랑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독립신문이 창간된 이래 100년의 역사를 걸어오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신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 현대사회에서는 필독의 간행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의 책임과 의무 또한 막중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신문은 국민의 사고를 올바르게 선도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새롭게 혁신하여 모든 분야에서 국민복을 위하여 바로설수 있도록 하는 언론 정도의 창달을 구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포천신문이 앞으로도 불의와 타협하거나 권력과 금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신문의 사명을 완수하고 실현하며 묵묵히 전진하여 경기 북부 지역의 중추적 언론 기관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또 이 지역 주민에게 보다 유익한 삶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사회를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을유년 새해가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어 낼수 있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세상의 첫 시작이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 사랑받고 신뢰받는 신문으로 자리매김



**조 대 형**  
동남고 교장

푸른 동해에서 떠오른 선홍색 햇살이 을유(乙酉)년의 대지에 사랑을 비춥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일년을 맞이합니다.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비록 어제와 다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과 눈은 정녕 벅찬 포부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북부지역은 친환경의 미래형 도시로 새롭게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첨단 산업 경제가 어우러지고 남과 북이 화합하고 교류하는 중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은 주민의 여망을 담아 미래의 푸른 꿈으로 찬란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포천신문>은 그동안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신문으로서 지역발전의 중심에서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주민에게 인근 각 시군의 행정 상황을 널리 알리고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과 함께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2000년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정신에 입각한 재창간을 기점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주민들의 성원과 기대 속에서 오늘의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천신문은 이지역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이지역 발전의 선도적 역할에 앞장서 주시므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신문으로 영원히 자리매김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새해는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을유(乙酉)년 닭띠 해를 맞이하여 어둠 속에서도 남들보다 먼저 깨어 여명(黎明)을 알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실한 자세로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천신문>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애독자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 멋진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는 방법



**양 근 원**  
포천신문 학생 명예기자단장

지난 한해는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2004년도에는 드라마가 유난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잠시라도 현실을 잊고자 서민들의 TV시청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도에 인기가 있던 드라마 중에 하나는 '대장금', '파리의 연인' 등이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어서

몇 가지 방법만 따라하면 누구라도 드라마 속의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인공들은 자신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들은 화면을 스쳐가지만 주인공들은 클로즈업됩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일은 드라마나 현실이나 모두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공들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집안의 반대를 각오하고, 자신을 깎아내려서 라이벌의 방해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

다. 쉽게 얻은 것은 그만큼 쉽게 잊어버립니다. 담금질을 두려워하는 쇠는 단단해 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보내온 선물들, 재능들은 뒤로한 채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 속의 성공한 주인공은 가족·친구에서부터 작은 메모지까지 모든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200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한편의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새해 첫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드라마의 인기는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감독·주연배우 모두 자신이 담당하는 인생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마지막에 가서는 활짝 웃을 수 있는 멋진 해피엔딩 드라마를 찍으면 좋겠습니다.

# 금호 건강랜드 사우나

목욕비 3,000원 대폭인하

## 연예인 총출연 및 주부노래지랑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6층 이벤트홀에서 노래자랑이 열립니다.

24시 영업

[5층] 얼음방, 옥돌자수정불가마, 불한증막, 이용원, 급냉탕, 비취찜질방, 소금불가마

[6층] 헬스, 에어로빅, 한식당, 스넥, 골프연습장, PC방, 소금방

